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大學의 社會史(1)—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學科)

12세기 大學이 성립되기 이전의 유럽의 학문은 교회, 특히 수도원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다. 이 시기에는 학문, 지식, 예술, 기술 등이 교회 도그마의 侍女로서 봉사했다. 이러한 知的 풍토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대학의 창건과 그것이 배출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었다.

大學의 社會史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2. 近世 大學의 形成과 思想의 自由
3. 近代 大學의 理念과 그 限界
—Humboldt의 大學像을 중심으로—
4.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1. 學識者와 知識人

문자가 쓰여진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지식과 학문의 소유자인 學識者가 존재한다. 이 학식자들은 리프셀(Seymour M. Lipset)의 이른바 '문화, 즉 예술·과학·종교를 포함한 인간의 상징세계를 창조하고 분배하고 응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지식인'과 일견 유사한 듯하다. 그러나 그들 학식자들은 지식인과 명백히 구별되어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인(intellectual)'이란 단순한 知的 기능자나 지적 전문가가 아닌 지적 창조와 비판의 기능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통 사회의 학식자들은 어떠한가.

古代 오리엔트 사회에서 혹은 그리스·로마 시대나 中國 및 우리의 유교적 전통 사회에 있어 학식층은 지식과 학문의 이해·조작·전승을 본분으로 하였으니 그들은 대체로 지적기능자 내지 그 전문가로 머물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오리엔트 세계나 유교 사회에서는 단일 이데올로기 내지 단일 문화가 몇 백 년에 걸쳐 停滯의으로 전수되고 지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필연적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니, 오리엔트적·아시아적인 정체성은 그 學知의 성격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學知와 사회의 정체성의 배

* 大學의 社會史(李光周)는 4회에 걸쳐 연재됨.

경에는 물론 갖가지의 역사적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니와 本稿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 학식층이 士大夫라는 지칭이 말하여 주듯이, 대체로 계층 사회의 세습적 동치 엘리트로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아무리 문화적·지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체제 지향적이기 마련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그들 학식층은 그들의 고유한 의식 구조나 행동 양식을 지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2 세기의 유럽 대학의 등장은 새로운 형태의 학식층을, 다시 말하여 최초의 지식인을 낳았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중세 대학의 교사나 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성직자였거나 성직 후보생들이었다) 교회의 조직이나 그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학도로서의 자의식과 행동 양식을 지녔던 것이다.

2. 大學 成立의 역사적 배경

중세 유럽의 대학(universitas)은 그 성립에 있어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組合(길드)'로서 출발하였다. 대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중세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수도원 학교 및 主教座 학교가 존재하였으며 대학은 그 후신이였다. 로마제국이 몰락한 뒤 대학이 성립되는 12 세기에 이르는 7 세기 동안의 유럽의 학문은 교회와 특히 수도원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다. 이 시기에 있어 학식자는 거의가 성직자였으며 그들에 의해 학문과 지식, 예술과 기술은 교회 도그마의 侍女로서 봉사하였다. 이러한 知的 풍토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대학의 창건과 그것이 배출한 '새로운 세대(moderni)'의 출현이었다.

대학이 카톨릭 교회의 절대적 敎權과 그리스도교적 單一文化의 풍조 속에서 그리고 수도원 학교나 주교좌 학교의 후신으로서 탄생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봉건 체제하의 王侯 내지 도시의 俗權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교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교사와 학생들의 자치적 공동체(corporation)였으니 이러한 사실은 대학의 본질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대학 성립의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우선 우리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세 최초의 대학인 파리대학(파리대학 이전

에 이미 이탈리아에는 볼로냐대학, 살레르노대학이 있었으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대학과는 다르다)이 창건된 12 세기는 하스킨즈(C.H. Haskins)의 이른바 '12 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리스도교적 서유럽 세계에 이슬람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전래되면서 학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의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에 눈을 떴다. 고대 문화의 부활이라고 이름지어진 12 세기의 이 새로운 知的 활동의 담당자들은 도시의 젊은 성직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데르니'로서 의식하였다. '12 세기의 르네상스'는 칼大帝의 궁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7~8 세기의 그리스도교적 敎化의 '카톨릭 르네상스'와는 다른 이제까지의 그리스도교적인 문화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지성의 일대 혁신 운동이었다. 12 세기는 전환의 시대이다. 중세 이래 몇 백 년 지속되어 온 교권과 속권의 蠶月時代가 바야흐로 종말을 고하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서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十字軍 운동과 특히 10 세기 이래의 상업 혁명에 이어 일어난 도시의 부흥 및 도시 문화의 출현이다.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Stadtluft macht frei)'. 12 세기의 변화는 특히 일찌기 없었던 동서의 문화 교류에 의해 뒷받침되고 추진되었다. 그 선구자는 번역가들이었다. 12 세기의 學藝復興의 길은 거의가 도시의 성직자들인 번역가들에 의해 열렸다. 그들은 동서 문화의 接合地인 스페인의 톨레도, 시칠리아 및 콘스탄티노플에 물러가서 선진 아랍과 그리이스의 古文叢書를 탐독하고 번역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리이스어, 라틴어, 아랍어가 公用語로 사용되었으며, 그만큼 코스모폴리탄적 지적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고대 학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식하였으며 '聖스러운 無知'를 표방한 시대는 지나갔다. 신앙의 시대가 물러가고 지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새 시대의 강렬한 지적 충동은 수도원 학교나 주교좌 성당 학교의 이른바 自由學藝(liberal arts)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카톨릭의 도그마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傳授될 뿐 논의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하여

이제 고전 철학에 의해 그리고 인간적 자의식에 촉발되어 사람들은 새로운 배움터를 찾게 되었다.

3. 認識에의 의지와 大學의 普遍性

「中世大學의 기원」(1964)의 저자인 그룬트만(H. Grundmann)교수는 대학 성립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여 그것은 교권이나 속권 혹은 시민 계층의 ‘특정한 욕구에 의한 것도 직업교육이나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도 아닌’ ‘학식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 즉 지식에의 의지와 인식에의 의지였다’라고 언명한다. 이렇듯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로서의 대학의 본질은 어떠한 기능이나 유효성을 위한 것이 아닌 지식과 학문에 대한 사랑, 순수 인식에의 의지에 의해 대학이 이루어진 데 있다. 이제 지식은 신앙보다도 우월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인간의 流議의 땅은 無知이며 조국은 知이다’라고 12세기의 學僧 호노리우스는 말하였거니와 知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의해 고대 철학자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보다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더욱 높이 평가되어 스승으로서 숭상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서나 敎父들의 저술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탐독한 사람들의 일단에 의해 최초의 대학이 당시 유럽의 문화 센터였던 파리에 창건되었던 것이다. 파리는 당시 유럽의 여러 대도시와 富를 겨루는 한편, 노틀담의 웅장한 고딕 성당이 우뚝 솟아오르고 한편에서는 카페王朝의 전아한 騎士道 文化가 화려하게 꽃 피어 호이징화가 표현하였듯이 문자 그대로 ‘비할 바 없이 창조적이며 造形的인’ 12세기를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이었다. 그리고 대학의 창건을 통해 파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 유럽의 야테네가 되었다.

도미니코단의 수도사인 아일랜드의 토마스는 13세기말 파리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즉 파리는 아테네처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상인·匠人·일반 서민의 거주 구역으로서 本洞이라고 불리운다. 두번째

는 귀족의 거리로서 王侯의 저택·대성당이 있어 시테(cite)라고 불리운다. 세번째는 학생의 거리로서 대학이라고 불리운다. 이 학생가는 라틴區(quartier latin)로 불리어 거기에는 유럽의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모여든 학생과 교수들이 그들의 公用語인 라틴어를 쓰고 있었다(라틴구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되며 이 구역의 중심이 파리대학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studium generale)’의 명칭은 거기에서 모든 대상이 배워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학생이 받아들여지는 장소란 데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나 교수할 수 있는 jus ublique docendi(교수 면허)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중세 유럽은 ‘보편적’ 카톨릭에 의해 통합된 하나의 코스모폴리탄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거니와 대학은 그 명칭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학생이나 교수의 국적이 전혀 불문시된, 그리고 대학이 자리잡은 국가나 도시로부터도 전적으로 독립되고 자유로운 자치적 공동체였다. 이와 같은 대학의 보편적인 성격이나 지위는 그것이 보편 타당한 진리의 배움터라는 인식과 관련된 것임은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인의 성격과 知의 성격을 더욱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에 관해 中世 연구자인 질슨(E.H. Gilson)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해 준다.

“대학 교수들은 프랑스인이란 무엇이냐를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들을 동일한 정신적 가족의 일원이라고 보고 동일한 근본적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 중에서 학자들은 대략 300년 동안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동안에는 진리의 세계성이라는 것에 대한 생생한 감정과 함께 적어도 일종의 서양적 일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의 보편성은 유럽 세계가 아직도 단일 민족을 기초로 하는 국민국가로서 엄밀히 분화·구별되지 않고 카톨릭의 ‘보편적’ 원리하에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유지한 중세에 있어 대학이

성립되었다는 사정과 깊이 관계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학의 보편적 지위나 성격을 뒷받침한 것은 바로 범유럽적인 보편적 권위를 지녔던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다. 특히 파리대학은 1194년 교황 케레스티누스 3세에 의해 처음으로 특권이 주어지고 그 自治權이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와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 보장되었다. 후자가 파리대학의 입법권과 강의 정지권을 인정하고 많은 점에서 학도들을 보호할 것을 파리의 대주교와 프랑스 국왕에 대해 요구한 1231년의 大勅令 ‘諸學의 아버지’는 특히 ‘대학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어지며, 대학에 대해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라는 보편적인 부동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레고리우스 9세에 앞서서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서는 이미 1158년에 ‘학문을 사랑하는 까닭에 교황을 떠나서 유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권(authentica habita)’을 공포한 바 있다. 그러던 중세를 통해 교황이나 황제 혹은 국왕에 의해 강조되고 확인된 대학의 특권은 무엇이었다.

4. 大學 自治의 진정한 권리

대학의 특권은 중세 대학의 본질을 이루는 대학의 자치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그가 선출한 學長(Rektor)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 학장은 대학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재판권을 지녔는데, 이 점에 우선 대학 자치권의 구조적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호선되고 교체되는 學部長(Dekan)을 長으로 하는 學部(Fakultät)에 의해 구성된다. 학부에는 신학부·법학부·의학부 및 하위 학부인 철학부가 있다. 대학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박사(Doktor) 학위 수여권, 승진권 및 교수 인가권이 있으며 그 밖에 각종의 대학 보직, 컬리지(College), 강당의 命名權 등을 지닌다. 대학은 이 특권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강의 정지(Cessation)’와 ‘移住(Migration)’의 권리를, 다시 말하여 개강하지 않거나 대학을 다른 지역에 옮기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상 대학 자치의 권리와 관련한 대학의 특권

을 요약하면 그것은 대체로 ① 교황에 대한 상소권을 지닌 교회 테두리 안에서의 재판상의 자치권 ② ‘강의 정지’를 하고 집단으로서 대학 소재지로부터 ‘이주’를 결행할 수 있는 권리 ③ 학위 수여권 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낯선 ‘강의 정지’와 ‘이주’(이것은 ‘離散(dispersio)’이라고도 불리었다)의 권리에 관해 설명하면, 군주나 도시에 있어서 대학이 자기들의 영역내에 있음은 경제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큰 자량이요 명예였다. 그리하여 대학은 군주나 도시 혹은 교회와의 대립 내지 투쟁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강의를 정지하거나 대학을 다른 지역에 옮기는 권리를 때때로 傳家の 寶刀처럼 행사하였다. 그 좋은 예로서 케임브리지대학은 1209년 옥스포드市와의 분쟁에 의해 옥스포드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옥스포드를 떠나 케임브리지에 이주한 결과 생겨났던 것이다. 市와의 타협이 이루어진 뒤 일부 학생과 교수는 그대로 케임브리지(대학)에 머무르고 일부는 옥스포드에 돌아와 대학을 재건한 것이다.

교황 호노리우스 3세는 1217년 불로냐 학생들에게 ‘학도의 자유’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특권은 중세 유럽 대학의 본질과 특성, 즉 자치적 공동체로서의 대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조합’의 본질은 밖으로부터 부여된 그 특권에 연유된 것은 아니다. ‘강의 정지’나 ‘이주’의 권리도 대학이 단순한 人的 결합체로서 특정한 토지에 定住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파리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성립의 시대에 있어 대학은 대체로 法人 건조물도 법인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다) 제 구실을 하였을 뿐 점차 많은 대학이 생겨나고 그 대학들이 강당이나 도서관 등의 건물을 갖추게 되면서 그것은 차차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한편 학문과 연구의 자유도 대학이 교권이냐 俗權으로부터 자유로왔다고는 하나 로마 교회의 최고권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거나 대학의 권리와 자유의 근거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특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대학 탄생의 근원적인 계기가 된 인식하는 자의 知的 의지와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유의 정신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최초의 敎授 아베랄르와 새로운 知的 狀況

대학이 탄생되기 이전에 있어 교회와 성직자는 문화의 독점자로 유일한 담당자였다. 지식은 교회의 도그마에 뿌리를 두고 교회에 봉사하는데 목적과 기능을 다하였다. 그리고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그것은 교단으로부터 전수될 뿐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 없었다. 철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과 예술이 신학의 충성스러운 노비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 풍토 속에서 중세 교육은 대체로 기억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대학 강의라 해도 오랫동안 교사들은 텍스트를 선택하여 그 주석서와 참고서를 준비, 텍스트에 관한 어휘 해석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암기 방식의 전통적 교육에 일대 쇄신이 일어났으니 그 계기가 된 것은 대학에서의 변증법과 토론의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고대 그리이스의 학술 문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의 원천으로 받아지면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단테는 「神曲」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식인의 스승’이라고 칭송하고 있거니와, 이 고대 철학자는 모든 학문에 걸친 그의 해박하고 심오한 학식과 방법론의 보편성으로 하여 중세를 통해 대학인의 최대 스승으로서 존경받았다.

1215년의 파리대학의 학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저작 전체를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중세를 통해 學藝科目(arts) 중심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논리학과 변증법의 중시, 주석에서 논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였으며 진리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명에 의해 밝혀진다는 생각을 대학인들에게 갖게 하였다. 교수는 이제 단순한 주석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규명하는 연구자가 되었다.

敎本을 떠나서 자유로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가르친 최초의 교수는 아벨라르(pierre Abélar, 1079~1142)였다. 그는 ‘근대적 지식인의 최초의 대표, 최초의 교수’였다. 아벨라르는 파리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과 철학을 강의하여 전 유럽의 학생들을 그의 주변에 모았다. 이 ‘변증론의 騎士’는 그 자신의 드라마틱한 수난의 생애가 웅변해 주듯이 대담한 자유인이요 知的 모험가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벨라르가 자기 자신을 敎師로서 자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지난 날의 교사에 관해 생각해 보자. 대학 성립 이전에 있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세에 있어 지식인이란 곧 성직자를 의미하였다. 서적을 가까이 하는 성직자들을 ‘學僧(clerc)’이라고 불렀다. 이 학생의 호칭은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성직자 이외의 讀書人에게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의 랑스 근교의 7개 마을을 조사, 추적한 결과 많은 학생 중에서 읽고 쓰는 문자 그대로의 讀書人은 몇몇에 그칠 뿐 대개는 읽는 것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敎養人(litterati)’이 종교성을 특징으로 한 시대에 있어 지식과 학문의 수준이란 가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성립과 더불어 서서히 변화를 일으켰으니 전문적인 知的 수련을 거친 전문가(professionnel), 즉 새로운 敎師身分의 출현이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교사들은 성직자 출신이건 귀족 혹은 농민 출신이건, 12세기 이래 도시의 학교에서 성장하고 13세기 이후 대학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12~13세기의 대학 초창기에 있어 대학인들은 지식인과 교사의 역할을 동일한 것으로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지식은 遊戲的 성격과 함께 도구적 혹은 직업적 성격을 지녔다. 1215년의 파리대학의 학칙은 과정 이외에 당국에 대한 대학인의 권리와 함께 지식인으로서의 문화적·사회적 의의를 역설하고 있으니 특히 지식을 분명히 하고 세계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인인 동시에 교사인 전형적인 인물로서 우리들은 또한 아벨라르를 들 수 있으니 그는 말하자면 오늘날 대학 교수의 원형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아벨라르는 사상 최초의 대학 교수였다.

아벨라르는 이미 정립된 지식 대계를 근거로 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學僧과는 판이하였다. 그와 그의 학생들은 교회의 도그마에 의거한 ‘학승’ 이기보다도 知를 발굴하는 ‘철학자(philosophus)’ 라는 말을 자기들에게 부여하기를 원했다. 모든 지식 중에서도 철학부의 自由學藝는 技藝(arts)로서 그것은 아벨라르가 말했듯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한 올바른 理’를 의미하였다. 이 ‘올바른 理’를 추구하여 아벨라르와 그의 학생들은 지적 세계에 신명을 걸었다. 그들 대학인들은 인식이 없는 곳에 신앙도 없다고 확신하였다. ‘지성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함은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과 같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아벨라르는 공공연히 표명하고 그 결과 異端으로 몰리게 되었다. 저서를 소각당하고 수도원에서 중신 금교형을 받은 아벨라르, 그러나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지적 항변을 서슴치지 않았던 그의 求道者的 인식에의 정열은 참된 知識人像을 우리들에게 교시한다. 「中世 유럽의 大學」의 저자인 라슈달(H. Rashdall)은 중세 대학의 명어를 ‘학문을 擧別한 것’에 찾고 이어서 ‘중세의 대학은 근대 정신의 학교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거니와 그 정초자는 바로 아벨라르였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정신의 힘과 웅변술로써 모든 것을 지배한 인간.
그는 아벨라르 두스이니.

이제 신학에 이성적·철학적 논증을 요구하고 믿는 것에 앞서서 인식에의 의지에 자기를 맡기는 아벨라르의 제자들이 파리에서부터 프랑스 각지와 전 유럽에 퍼졌다. 파리대학을 본받아 옥스포드, 프라하, 비엔에 대학이 설립되었다. 1348년에 황제 카알 Ⅳ세에 의해 프라그에 독일제국 최초의 대학이 창설되었을 때 이미 프랑스에는 8개의 대학, 이탈리아에는 15개, 스페인에는 6개, 영국에는 2개의 대학이 각각 존재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대학 성립이 초래한 지적인 새 상황에 관해 논의하였거니와 이 새로운 지적 양상의 모습을 당시의 書籍文化의 추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6. 中世大學과 書籍文化

대학의 창건과 그에 이어서 일어난 知的 풍토의 쇄신은 중세의 유럽 서적 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우리들은 12세기 이후의 서적 문화의 양상을 통해 대학 문화의 한 측면을 살펴 보자.

구텐베르크의 活版印刷 발명 이전에 있어 서적은 寫字工房(scriptorium)에서 寫字生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공방은 프랑스에서는 12세기, 영국에서는 14세기초 이래 존재하였다. 寫字本 제조의 중심은 문화의 중심인 수도원이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수도원은 自家用 이외의 책은 거의 만들지 않게 되고 대학의 교사·학생이 專門的 匠人들과 공동으로 서적의 유통 구조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대학이었으니 지적 활동의 중심 무대가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서적 출판의 경향이 서서히 달라지고 새로운 타입의 독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독서인의 대부분은 아직도 성직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대학에 머무는 한에 있어 ‘教授團(arma mater)’에 속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교회 관계의 조직에 관련하지 않아도 되었다.

전문적인 寫字生들은 대학의 주변에 모여 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서적에 관한 전문 업자들의 조합(길드)이 형성되었다. 寫字生은 僧籍이 많았으며 서적상은 俗人이었다. 그런데 사자생이나 서적상은 대학에 속하는 ‘從業者’로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법권의 영역에서는 대학 자치권에 귀속되고 재판권 면제의 특권을 비롯하여 야경 의무의 해제 등의 특권을 지닐 수 있었다. 반면 그들 서적상·사자생은 대학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대학 조직에 봉사해야 했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서적의 판매나 대출 및 寫字의 요금도 대학이 규정하였다. 그 후 서적상은 조합을 형성, 1548년 이후 베네치아, 1557년에는 런던, 1570년경에는 파리, 그리고 그 뒤 점차 유럽 대부분의 대학 소재지에 서적 조합이 조직되었다. 그 조합원들은 ‘기계적 일과는 전혀 다른’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니고 대학 도시에서는 대학 ‘산하의 사람들’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교수·학생에 이어 갖가지 혜택을 누렸다. 대서적상이 재산가로서 市의 고위 공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점차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적상은 대체로 몇 代에 걸쳐 그것이 家業으로서 이어지고, 그 결과 그들은 특수한 心性을 지닌 폐쇄적 小世界를 형성하였다. 그들 서적상은 또 新思想을 전파하는 최전선에 있었으므로 위험한 입장에 놓이기도 하였으니 禁書와 더불어 火刑臺에 오른 ‘서적의 순교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독자층에 관해 생각해 보자. 12세기 이전의 수도원 문화의 시대에 있어 학식자의 절대 다수는 성직자였고 유럽의 귀족 계급은 武人身分이었으므로 그들은 대체로 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각지에 대학이 자리잡은 13세기말 이후 성직자, 귀족과 더불어 시민 출신의 法曹家, 王의 고문, 각 분야의 상급 관리, 그리고 시대를 내려오면서 부유한 상인, 金利生活者 등 비교적 광범위한 독자층이 형성되었다. 이들 광범위한 독자층의 대두는 바로 다양한 서적의 출판을 초래하였다. 이전의 寫字本은 성서의 주석서와 각종 신학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고대 철학 서적, 그리이스·로마의 古典, 법률 서적, 정치 서적, 과학서 이외에도 醫藥書, 소설, 번역 등의 문예 서적들이 라틴어가 아닌 俗語(自國語)로써 출간되었다. 俗語 文藝는 청중 앞에서 낭독되는 口承文學이나 그것을 낭독하는 吟遊樂士(gongleur), 트루바두르(南佛戀愛詩人) 등을 통해 일반 민중들에게도 전파되었으나 민중은 18세기에 이르도록 거의 문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자층과 출판 영역의 다양화는 서적 출판 부수의 증대를 별로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寫字本은 그 성격으로 부수가 한정되기 마련이고 또 대단히 高價였다. 성서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 하급 신부의 경우 그의 1년 봉급을 고스란히 저축해야 했다. 12~13세기에 있어 서적 한 권의 출판 부수는 대개 500부를 넘지 못했다. 文藝에 대한 의존이 도시에서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읽는’ 문화라기보다

도 ‘말하는’ 문화였다. 托鉢修道士들의 활발한 활동이 보여 주듯이 말(설교)에 의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였다. 대학의 철학부(신학부·법학부·의학부 학생은 교양 학부인 이 철학부를 거쳐야 했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텍스트를 모아 여러 개론서가 제작되었는데 그 부수는 각각 200부 정도였다. 학문과 예술의 꽃이 만발하였던 文運隆盛의 15세기말 인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대출판업자들은 고작 1,500부 이상의 부수를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면 王侯나 대학의 장서는 어땠던가.

12세기경 200권 정도의 장서면 훌륭하였다. 파리대학에 속한 소르본느學寮의 장서는 1338년 당시 큰 책상의 쇠사슬에 묶인 대형 서적이 338권, 대출 도서가 1,728권이었다. 이들 장서를 類別하면 文法書(라틴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및 그 주석서, 몇 권의 법학서가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은 신학서였다. 59개 부문에 분류된 대출 도서 중에는 古典作家의 저술도 약간 있었다. 옥스포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의 장서는 겨우 수백 권에 불과하였다. 도미니고 修道會나 托鉢修道士의 장서도 대학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대개의 王侯나 귀족들은 견식 있는 愛書家이었다. 15, 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있어 시민층의 장서가는 아직 없었다. 도미니고 수도회는 서적을 무기로 비유하였거나와 학식 있는 성직자, 귀족은 그들의 유언에서 장서의 遺贈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 만큼 서적은 귀중품이었다. 寫字本 시대에 있어 저작은 王侯와 귀족들에게 한정하는 형식으로써 출간되고 또 그들은 저술과 출판의 패턴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저작자는 그의 저작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지니지 못하였다.

7. 學生의 출신 성분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와 특히 학생들의 신분 계층에 관해 살펴 보자.

‘Doctor’ 혹은 ‘Magister’, ‘Professor’로 불리는 중세 대학의 교사의 대부분은 성직자였다. 대학을 구성한 4개 學部 중에서도 신학부가 중심 학부였다. 이는 교사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신학부 소속이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거나와

중세 학식자의 거의가 學僧인 데 인유됨은 물론이다.

대학에 있어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신분은 동등하였다. 귀족 출신이건 시민 혹은 농민의 자제이건 귀천이나 빈부를 불문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은 조합적 단체인 ‘우니베르시타스’에 평등하게 결합되었다. 물론 총·학장 선출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봉건제도하의 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물론 교회 제도하도 판이한 것이었다.

학생의 출신 성분에 관해서는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나 15세기 이전 신학부 학생은 많은 경우 농민 출신이었고(중세에 있어 농민 출신의 사회적 上昇의 길은 성적자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도 대개는 하위 신부직에 머물렀다), 법학부는 귀족과 고위 관리 및 부유한 시민 계층 출신에 의해 차지되고, 의학부의 경우 시민 계층 출신이 많았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는 재적 명부에 ‘貧民(pauper)’으로 기록되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독일 쾰른대학의 경

우 1450년대초에 그러한 학생들이 언제나 전체 학생의 16~20%를 헤아렸다. 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은 숙박과 식량의 급여, 무료 식사, 각종 장학금과 자선 시설, 그리고 가난한 학생의 집이라고 불리웠던 ‘기숙사(Burse)’가 있었다.

교사나 학생의 출신 계층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수학한 뒤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출신 계층에 따라서 지극히 불평등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빈민’ 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적당한 직위를 얻지 못한데 반해 귀족 출신은 물론 법학부나 의학부를 필한 시민 계층 출신 학생들은 법률 고문이나 의사로서 치부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예로운 공직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학문의 연구는 하층 계급 출신을 귀족에까지 출세시킬 수 있다’고 일컬어지기도 했고 그러한 예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부유한 시민 계층 출신에 있어서 박사 학위는 비로소 敍爵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